

# 한우 비육산업의 동향 및 전망

고경철, 정진형, 김효선, 선철원



## 전 망

- 한·육우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 (농경연 축산관측)  
(’11.6.)303만두 → (’11.9.)306 → (’11.12.)299 → (’12.6.)309
- ※ 이력제 등록자료에서도 사육두수 계속 증가  
(’10.8.)317만두 → (’10.12.)328 → (’11.7.)338

## 생산 측면

- 한우(가임)암소의 지속적 증가로써 송아지생산두수 계속증가
  - 한우암소 : (’10.8.)187만두 → (’10.12.)195 → (’11.7.)204 (증 17)  
(가임암소) (145만두) (141) (151) (증 6)
- 한편, 소 사육농가의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
  - 사육농가 수는 감소 : (’10.4.)199천호 → (’10.12.)197 → (’11.7.)190
  - 농가의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 중
    - 5두이하 사육농가비율 : (’10.4.)49.3% → (’10.12.)45.1 → (’11.7.)41.0
    - 20~49두 사육농가비율 : (’10.4.)12.9% → (’10.12.)14.2 → (’11.7.)15.9
  - 농가 평균사육두수 증가 : (’10.4.)17.5두 → (’10.12.)18.9 → (’11.7.)2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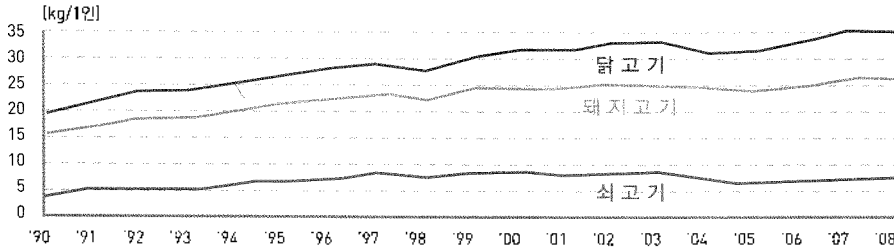
## 도축 측면

- 도축두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, 가까운 장래에 사육두수가 감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음
  -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던 ’97~’02에는 암소 도축비율이 50%이상이었음
    - 암소 도축비율 : (’97)53% → (’98)50 → (’99)57 → (’00)57 → (’01)52
  - ’06년 200만두를 초과하면서 소값하락을 우려, 암소도축비율이 증가
    - 암소도축비율 : (’06)35% → (’07)39 → (’08)41 → (’09)43 → (’10)41
  - ’09년 소값 급상승으로 ’10년부터 사육두수 급증, 암소도축비율 감소
    - 사육두수 : (’06)202만두 → (’07)220 → (’08)243 → (’09)263 → (’10)292
- ※ ’09년 “음식점원산지 표시제”와 “소 이력제”에 힘입어 소값이 급상승하면서, “사육두수가 250만두를 초과하면 소값이 하락할 것이다”라는 우려를 더 이상 하지않게 될.
- ※ 암소 도축비율의 감소는 오히려 소 사육두수 증가를 보여주는 척도

## 소비 측면

### ■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답보상태

- 1인당 쇠고기소비량 : ('00)8.5kg → ('03)8.1 → ('05)6.7 → ('07)7.6 → ('09)8.1



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(kg/인) (자료 : 농식동부2010)

### ■쇠고기 공급량 증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신 수요 창출이 시급한 국면에 돌입

- 신 수요 창출없이, 수입쇠고기 소비량을 줄이고 국내산으로 자급율을 높이는 방안은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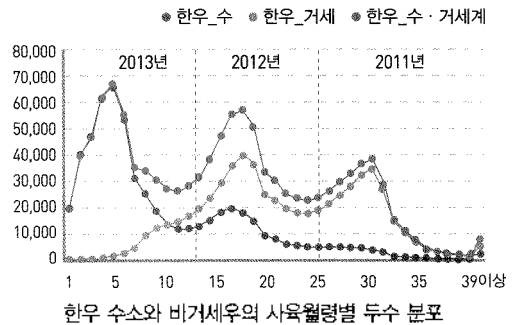
## 가격 측면

### ■내년 추석 대기물량은 금년도의 150%이므로,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- 한우(수+거세)의 향후 출하 대기 물량은 내년 추석에는 금년추석물량대비 150% 그리고 2013년 추석에는 176% 출하예상

- 한우(수+거세) :

('11.8.)38천두 → ('12.8.)57천두 → ('13.8.)67천두  
(출하예정시기) (금년 추석) (내년 추석) (내후년 추석)



한우 수소와 비거세우의 사육월령별 두수 분포

## 비육농가의 대응 전략

### ■내년 추석 대기물량은 금년도의 150%이므로,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- 사육두수를 줄이면서 정예화
- 이미 사육하고 있는 소는 모두 "빨을 달고 나와야"한다.
  - 1+등급 또는 1+등급을 받아야 농가수익이 발생됨
  - 전체평균가격이 1등급평균가격을 상회하고 있음

### ■일관사육체계로 전환

- 큰 소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비육농가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관사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
  - 송아지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번식기만이 약해져서 우량송아지를 우시장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비육농가는 우량송아지 자가생산이 필수적임